

대구주보

연중 제19주일
2020. 08. 09. (가해) 제2226호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 14,27)



『물위를 걸으심』, 이반 아이바조프스키, 1888,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종교사 박물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것

평화본당 주임 | 오상직 베네딕도 신부

오늘 복음 말미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녁 큰 사건(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부터 지금 새벽까지 제자들은 역풍을 만나 안간힘은 쓰며 배를 몰고 있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스승을 목격합니다. 베드로는 청하여 스승과 함께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다 무서워 빠진 베드로는 스승에 의해 구해지고, 그가 배에 오르자 불던 바람마저 멈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스승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제자들이 스승의 진면목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치고 놀라서 엉겁결에 터져 나온 두려움 섞인 탄성 같습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는 ‘오병이어’라고 알려진 대단한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반대편으로 떠나 보내고 혼자 군중을 둘러보내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여 군중들과 떼어내어 떠나보내신 것은 그들이 이 대단한 빵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군중들 사이에서 입히는 이상한 기운을 알아차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짹짹 다독이고 감동을 주어 질서정연하게 둘러보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사명, 선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나 오늘날처럼 물 위를 걷거나 걷게 하는 기적을 행하는 분, 마귀를 몰아내고 병든 이를 치유해 주는 의사, 혹은 죽은 이까지 일으키시는 신통방통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며 스승

이 선포하고 있는 하느님 나라를 알아가기보다 돈이 되는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스승의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스승이 선포하고 살아내고 있는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며, 내가 살고 그들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빵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겁에 질려 “유령이다!”라며 스승을 한낱 물 위를 걷는 유령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신 것은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여 물에 빠졌으니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가르치고 보여주었고 같이 살고 있는 하느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지 않느냐? 내가 한 일들, 특히 너희들이 가진 그 몇 안 되는 빵과 물고기로 오 천 명이 공동 식사를 한 일을 보아서라도 믿어야 하지 않느냐?’는 안타까움에 터져 나온 한마디 외침입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분이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때로 위험과 두려움에 빠진 이들을 구하며 인내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나의 기도와 인내는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묵숨 걸고 하느님 나라를 살며 전했듯 형제자매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필문**

그대 어디로 가는가?

교구 생태환경위원회 간사 · 삼덕본당 | 장원철 암브로시오

‘한티 가는 길’은 칠곡군의 낙동강과 팔공산을 잇는 45.6km의 백 리가 넘는 길이다. 가실성당에서부터 왜관읍과 지천면 경계 산길을 걷고 신나무골과 창평지를 거쳐 건령산과 여부재를 넘어 동명면 마을에 이르고, 지마산과 도덕산 사이의 남원리 원당공소 마을을 지나 팔공산 한티재 바로 아래 한티순교성지에 이르는 옛길이다.

‘한티 가는 길’의 산길과 숲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스스로 ‘생태 순례자’가 될 수 있다. 걷는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하느님께서 만드신 여러 피조물들인 풀꽃과 나무, 나비, 벌 등의 여러 곤충들과 새들을 만나며, 잠시 멈춘 발걸음 속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산과 농촌의 집들이 서로 어울린 담백한 자연의 수채화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병인박해(1866)와 무진박해(1868) 때 숨어 살았던 한티마을 순교자들이 하느님을 향한 성사를 위해 신나무골을 오고 갔던 그 절절함을 거친 숨을 내쉬는 발걸음을 통해 150여 년 전의 역사 속으로 되돌아가 볼 수 있다.

지난 2016년에 열린 대구 근교의 ‘한티 가는 길’은 ‘그대 어디로 가는가?’를 속 부제로 하여 돌아보는 길(1구간), 비우는 길(2구간), 뉘우치는 길(3구간), 용서의 길(4구간), 그리고 사랑의 길(5구간)까지 총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져 약 9km 전후의 한 구간을 4시간 전후로 개인의 성향에 맞추어 천천히 걸을 수 있다.

산길과 숲길을 걷는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만드신, ‘하느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피조물의 세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열어나가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결국 온몸으로 걷게 되는 가운데 땅과 발바닥과의 교감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온몸의 감각기관을 주위에 선 듯 열어놓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길을 걸어가며 자유스러움과 자연스러움을 유지한 채 혼자 쉽게 사색에 빠져들거나, 자신의 주위에 늘 있었지만 지금까지 거의 전혀 모르고 있었던 주위의 풍경과 풀꽃, 나무, 숲, 산마루, 그리고 공기, 바람, 냄새와 향기 등, 모든 피조물들과 자신만의 감각 언어로 대화하고 기도할 수 있다.

요즘 ‘한티 가는 길’의 ‘그대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은 기후 위기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접해 있는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창세기 3,9)”라고 물어오고 계시는 것처럼 다가온다. 늦여름 8월과 순교자 성월의 9월에 ‘한티 가는 길’ 속의 생태 걷기를 통해 하느님의 아름다운 선물인 피조물들과 함께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는 기도 시간이 각자에게 주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그대 어디로 가는가? **필문**

전례력에 따르면 가, 나, 다해로 구분되고, 독서와 복음도 다른데 왜 그런가요?

교회는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 전체를 알려 주고자 성경 독서를 알맞게 배정하는데, 주일과 축일에 성경의 주요 부분을 3년 주기로(가해, 나해, 다해), 평일에는 2년 주기(홀수 해, 짝수 해)로 적절히 나누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연중 시기의 주일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복음의 주요 부분을 3년 동안에 다 들을 수 있게 ‘가해’에는 마태오 복음서를, ‘나해’에는 마르코 복음서를, ‘다해’에는 루카 복음서를, 연중 제2주일과 ‘나해’의 연중 제17~21주일에는 요한 복음서를 읽도록 하였습니다.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그 전례의 시기와 조화를 이루는 복음을 읽습니다.

주일 미사의 제1독서는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읽고, 부활 시기에는 사도행전을 봉독합니다. 제1독서는 그날 복음의 주제와 일치하는 성경 본문이 배정됨으로써 신자들이 복음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배려하면서 신약이 구약의 완성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2독서는 신약 성경의 서간이나 요한 묵시록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일 미사에서는 1년 동안에 복음서를 순서대로 읽도록 하고, 독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주요 부분을 2년 안에 다 읽을 수 있게 홀수 해와 짝수 해로 나누어 가급적 연속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신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사순, 대림, 성탄, 부활 시기의 독서는 전례 시기의 특징 때문에 해마다 반복해서 읽습니다.(미사 독서 목록 (Ordo Lectionum cum Missale), 지침 참조)

말씀 전례는 성찬 전례와 함께 미사의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느님 말씀의 풍부한 식탁을 마련하고자 성경의 보고를 널리 개방하고, 회중들에게 성경의 주요 부분을 일정한 햇수 안에 낭독하도록 위와 같은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전례 현장』 51항 참조)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미사 전례』



지황 사바 (1767~1795년)

‘지홍’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지황(池瓊) 사바는 1767년 한양의 궁중 악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조선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원하여 교리를 배웠다. 본래 성격이 순직하고 부지런하였던 그는 천주교에 입교하자마자 오직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만 열중하였고, 하느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위협이나 궁핍, 고통을 당할 때에도 결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1793년 성직자 영입 운동이 전개되자 이때 이미 북경을 다녀온 적이 있는 윤유일 바오로를 비롯하여 사바와 박 요한이 밀사로 선발되어 함께 조선의 국경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 다음 윤유일은 그곳에 남고, 사바와 요한이 조선의 사신 행렬에 끼어 북경으로 향하였다.

북경에 도착한 지황 사바는 얼마 안 되어 구베아 주교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때 사바의 신심에서 감명을 받은 구베아 주교는 훗날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우리는 1793년에 지황의 신앙심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40일간 북경에 머무르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견진과 고해와 성체성사를 아주 열심히 받았습시다. 그래서 북경의 교우들은 그의 신심에 감화를 받았습시다.”

1794년 초 구베아 주교는 중국인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조선 선교사로 임명하였다. 지황 사바는 조선으로 귀국하였다가 다시 국경으로 가서 주문모 신부를 만났으며, 12월 24일(음력 12월 3일) 밤에는 그를 조선에 잠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 다음 윤유일과 함께 신부를 안내하여 12일 만에 한양 최인길 마티아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주 신부는 몇 개월 동안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다가 한 밀고자에 의해 그의 입국 사실이 조정에게 알려지면서 위협에 처하게 되었다. 이때 신부는 신자들의 재빠른 행동 때문에 다른 곳으로 피신할 수 있었지만, 집주인 최인길을 비롯하여 신부의 입국을 도운 사바와 윤유일은 포졸들에게 체포되고 말았다.

이내 지황 사바와 동료들은 포도청으로 압송되어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부의 행적을 발설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굳은 신앙을 고백하였다. 형벌을 받는 중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천상의 기쁨이 넘쳐 얼굴에까지 번졌다. 그러자 박해자들은 더 이상 그들을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정없이 그들을 때려 숨지게 하였다. 그런 다음 비밀리에 그들의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렸으니, 이때가 1795년 6월 28일(음력 5월 12일)로, 당시 사바의 나이는 28세였다.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1열왕 19,9~11-13ㄱ	제 2 독 서	로마 9,1-5	복 음	마태 14,22-33.
화 답 송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나 주님께 바라네.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네.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

2020년 2학기 성경 및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개 강 : 8.31(월) 각 강좌 요일별 개강 | 장 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남산동) 강의동 2층
 수강료 : 과목당 70,000원(2과목 이상 신청시 과목당 60,000원) | 문 의 : 가톨릭신학원, 660-5105

시간	월	화	수	목	금
10:00 ~ 12:00		요한계문헌	철학과 그리스도교	철 학	신약성경입문
		동양고전	사도바오로		
14:00 ~ 16:00		신학 첫걸음	신 론	시편과 지혜문학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만남
		마리아론		교회론	역사서
19:30 ~ 21:30	교회봉사자 양성과정	가톨릭교회 교리서해설	예언서	가톨릭서간	

교회봉사자 양성과정 개설

교회 내 제단체 봉사자들을 위한 성경과 신학 입문 강좌가 열립니다.

※ **Daum** KakaoTalk **플러스친구** 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을 검색하세요.

※ 추후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일정 변동 가능

모두모두 힘내십시오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0일(월) 10:30 범어성당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8월 10일(월) 11:00 계산성당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0일(월) 11:00 신평성당	미باه회 월례미사	8월 15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10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천주의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8.15(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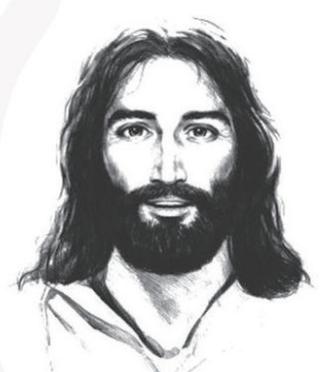
토요 성령기도회

일시: 매주 토 14:00~17: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묵주 기도 피정: 매주 목 11:00~16:30

문의: (010)9045-0191



오너라

(마태복음 22:14 이사야 66:2)

캘리그래피, 장성영 안드레아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와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前 대구가톨릭대학병원 조교수

053-255-2211

신남역(청라언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임 (아네스)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원(토마스) 010-5623-9001

은진종합건설
리모델링

보일러, 수도누수, 방수, 페인트
지붕공사, 전기누전, 막힌곳 "뽕"

정상진(그라시아노) 권순여(그라시아)

대구시 서구 염색공단로7길 13
010-3526-7401 (천주교 신자 우대)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강검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하마의사의 **건강벨트**

www.hangmuns.com 대구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T.053-959-7175 F.053-959-7577 P.010-9597-7175

이데오피스·문구

Canon 흑백복사기 60,000원/월
Canon 컬러복사기 90,000원/월
복사용지·문구류 무료배송

흑백복사기(A3) 중고 기증 가능
053)756-0949 대표 황현진(필립보)

장수효요양병원

병원장 김경열 시론

입원 대상: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치매, 신경계질환
노인성질환, 말기암 환자, 욕창, 수술 후 회복
장기적인 치료 요양

입원 시 필요서류
진료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처방 전 결과검사지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의뢰서)

☎ 053)285-1100, 1101, 1103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길준(바오로) 신부
2003년 8월 9일
- 구마슬(마르첼리노) 신부
1929년 8월 11일

성소 | 피정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 1실로 거리두기 가능합니다.
일시: 8.13~16 / 8.25~27 / 8.31~9.2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성이시돌피정의집, (064)796-9181

예수마음기도 영성 수련 피정(권민자 수녀)

1박 2일: 8.15~16 / 9.5~6
3박 4일: 8.20~23 / 9.10~13
8박 9일: 9.15~23 / 10.12~20
장소: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대구 예수마음기도 피정(4주 과정)

일시: 8.31~9.21 매주 월 10:00~16:30
9.5~9.26 매주 토 10:00~16:30
장소: 지산성당(선착순 10명)
대상: 하느님과 깊게 만나고 싶은 분
신청: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010)9620-5603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성소 피정

중3~고2: 8.9(일) 9:00~17:00
장소: 교구청 및 성모당
고3~대학·일반(입사반): 8.13(목)~15(토)
장소: 한티피정의집
자격: 예비신학교 등록생

교육 | 모집 | 기타

신구약 성경 강의와 마음에 말씀담기
접수: 8.9(일)부터,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내
구약: 창세, 탈출, 레위, 민수, 신명
신약: 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
구약반: 화(밤), 목(낮) / 신약반: 수(낮)
문의: 포교베네딕도수녀회, (010)2512-4627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일시: 9.7(일)~22(화)
모집: 전국 전 지역
문의: (043)260-5076

가르멜 수사님과 함께하는 수도원 체험

일시: 10.30(금)~11.1(일)
장소: 마산 가르멜수도원
문의: (010)2140-7414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 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채용 | 안내

교구청 경비(영선) 직원 채용

자격: 60세 이상 신체건강한 신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마감: 8.21(금) 16:00
제출: 교구청 관리과, 250-3031

한국SOS어린이마을(법)

동촌성모유치원 원장 채용

자격: 원장 자격 소지자
(교구 홈페이지 참조)
문의: 한국SOS어린이마을, 984-6928

청도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오픈

대상: 자연 속에서 휴양이 필요하신 분
(암 환자 환영)
문의: (054)373-3955 / (010)5225-4538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광고제재일: 8월 16일 / 12월 27일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메리)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10방향 200m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가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공장직영도매(동고령C)
삼우싱크
이용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불박이,신발장,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밤·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255-8119
3호선 범용역 2번출구 (충남방향 20m)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 만 철(바오로)
하 중 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가람소방방재(주)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
◆종합정밀점검 ◆소방관련기술교육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엔씨노비스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서준영(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진료분야 : 조현병, 우울증,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정신질환